

보험료 내리고 손해율 치솟아… 손보사 ‘구조적 적자’ 위기

손보사 4곳 올해 車보험 손해율 85%
최근 15년 누적 적자 7.2조 달해

3분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 119%
비급여 콜립·도덕적 해이 영향 커
“실손 보험료율 현실화 절실”



Chat GPT가 생성한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손해율 경고 이미지.

는 최근 15년(2010~2024년) 누적 적자는 7조2000억원, 올해만 5000억~6000억원 손실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도 자동차보험료는 최근 4년 연속 내려왔다. 손보사들은 지난 2022년 이후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해마다 인하해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해 왔다.

반면 같은 기간 정비공임은 지난 2022년 4.5% 인상을 시작으로 매년 2~4%대 인상이 이어졌고 부품값·렌터카 비용·인건비도 뛰었다. 경상환자 과잉 진료와 생계형 보험사기까지 겹치면서, 의무가입인 자동차보험이 이제는 “많이 팔수록 손실이 커지는 상품”으로 바뀌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4개 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올해 1~10월 자동차보험 평균 누적 손해율은 85.7%로 집계됐다. 손익분기점으로 여기는 82% 안팎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10월 한 달 손해율은 87.4%까지 치솟았고, 올해 3분기까지 이 부문에서만 952억원의 누적 적자를 냈다. 업계에서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전부터 자동차 보험은 ‘돈 많이 벌어야지’라는 사업이라기보다 손해만 덜 나면 다행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며 “덩치가 워낙 커서 보험료를 1~2%만 낮춰도 손해율이 그만큼 나빠지고, 개별 회사 입장에선 손익이 몇 백 억원씩 증발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상황이 더 좋지 않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1~4세대 실손보험을 합친 위험손해율은 119.3%다. 1세대와 2세대는 각각 113.2%, 114.5%였고, 3세대는 137.9%, 4세대는 147.9%까지 올라 전 세대가 적자 구간에 놓였다.

최근 5년(2020~2024년) 누적 적자는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실손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지난 2010년 30개사에서 올해 11월 18개사로 줄었다. 실손보험료는 2022~2025년 14.2%→8.9%→1.5%→7.5%씩 올랐지만 손해율은 여전히 세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급여 콜립과 도덕적 해이는 실손 적자의 직격탄이다. 지난해 손보사 전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12조9000억원 가운데 상위 10개 비급여 항목이 3조 9000억원(30.1%)을 차지했다. 이 중 물

리치료(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가 2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비급여 주사제는 6525억원이 나갔고, 비급여 보험금은 2017년 4조 8000억원에서 2023년 8조2000억원으로 약 7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다수 가입자(약 65%)는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반면 상위 9%가 전체 보험금의 80% 안팎을 가져가는 불공정 구조도 고착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크게 오르지 못한 사이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를 실손이, 교통인프라·의료비·정비비 상승을 자동차보험이 대신 떠안았다. 가격 인 보험료는 정치·사회적 이유로 놀려놓고, 비용인 비급여·정비비와 허위·과잉청구는 제대로 건드리지 않은 결과가 손해율을 급등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 의료보험은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10조원이 넘는 적자가 쌓이면서, 판매 보험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실손 1~4세대의 보험료율을 현실화하고 요율 조정 원칙과 소비자 부담 분산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KB국민카드

‘KB특별한 적금’ 가입 연 최고 15% 금리혜택

KB국민카드가 KB국민은행과 제휴해 적금 상품에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KB국민 위시올(WE:SH All)’ 카드를 보유하고 직전 6개월 간 KB국민 신용카드 결제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2026년 2월 28일 까지 ‘KB 특별한 적금’ 6개월 만기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KB 특별한 적금 최고 이율은 연 6.0%이다. KB국민카드는 이벤트 대상 고객이 ‘KB국민 위시올(WE:SH All)’ 카드를 적금 가입월부터 만기월까지 월 10만원 이상 이용하면 달성 횟수에 따라 최고 연 9.0%포인트(p) 추가 금리를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이벤트 대상 고객이 적금을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2만원의 만기 축하금을 추가 지급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11일 “당사 대표 카드상품과 KB국민은행 대표 적금 상품을 연계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언재선 기자

금감원 “대부업 불법추심 뿌리 뽑는다”

서울 등 4곳 ‘대부업자 대상 설명회’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의 준법의식 제고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전국을 돌며 ‘대부업자 대상 설명회’를 연다.

최근 불법추심, 초고금리 계약 등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일제 검사와 함께 현장 교육을 병행해 취약차주 보호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역량을 동시에 끌어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11일 금감원은 대부업자의 법규 준수와 감독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2025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11일 대구를 시작으로 12일 광주·부산, 17일 서울 등 4개 도시에서 열린다. 금융위원회·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와 각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다.

이번 설명회는 ▲주요 법규 위반 사례와 업무상 유의사항(세션 I) ▲개정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과 채권 추심 시 유의사항(세션 II) ▲개정 ‘대부업법’과 관련 가이드라인(세션 III) 등 세 세션으로 구성된다.

/김주형 기자

신용회복위원회

주거취약계층 지원 서울시와 업무협약

신용회복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구직활동이 제한된 주거취약계층에게 채무조정을 통한 통장압류 해제 등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고, 일자리 사업 참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노숙인공공일자리사업 참여 시 신용회복 상담병행 ▲노숙인시설 담당자를 통한 간소화 된 상담 신청 ▲도박·알코올 중독자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제공 등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노숙인의 26.6%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71.3%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됐다.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센터에서도 최근 3개월 동안 한주 평균 10건 정도의 신용회복 관련 상담을 제공했다. 노숙인 중 상당수가 채무 관련 문제를 보유하고 있어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안승진 기자



우리은행 굿윌브랜치(우리은행X굿윌스토어 밀알여주홍문점) 1호점. /우리금융

우리금융, 사회공헌형 점포 ‘굿윌브랜치’

은행+기부매장 공존 ‘여주점’ 개점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경기도 여주시에 사회공헌형 은행점포 ‘굿윌브랜치 여주점’을 개점했다고 11일 밝혔다.

‘굿윌브랜치’는 폐쇄 예정이었던 우리 은행 영업점을 축소 운영하고, 남는 공간에 굿윌스토어를 입점시킨 ‘숍인숍(Shop-in-Shop)’ 방식의 사회공헌형 점포다. 은행과 기부 매장이 공존하여 지역

주민에게 필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기부문화 확산 혜택을 거둘 수 있다. 우리금융은 지방 영업점 폐쇄에 따른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강화 정책에 부응해, 금융권 최초로 유튜브 공간과 굿윌스토어를 결합한 상생 모델을 도입했다. 굿윌브랜치 여주점은 지역 내 금융권 1호 사회공헌형 점포로, 향후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스타벅스 별 적립해 주고

해외 배송비 10달러 할인

카드사, 연말 프로모션 다채

카드사들이 연말을 맞아 다양한 할인·프로모션을 내놓고 있다. 글로벌 가맹점 제휴를 통해 해외여행객을 겨냥하는 한편, 경품 추첨 등 시즌성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이 달 말까지 글로벌 가맹점과 제휴를 맺고 다양한 혜택을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해외 스타벅스에서 우리카드로 결제 20달러 이상 결제 고객에게 별 8개를 적립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리, 日 돈키호테 이용 시 캐시백 KB국민, 해외 가맹점 100만 포인트 신한, ‘디스커버가 쓸께요’ 이벤트

연말 맞이 일본·미국·베트남 여행객을 위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일본 돈키호테 전 지점에서 1만엔 이상 이용 고객에게 1만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또, 베트남 롯데면세점에서 100달러 이상 결제 고객에게는 3만원 캐시백을 지급한다.

미국을 여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는 미국 본토에서 50달러 이상 결제할 때마다 5000원을 캐시백해준다. 코스트코·트레이더존·타깃 등 미국 주요 대형 마트에서 결제하면 30%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KB국민카드 해외 배송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연말 이벤트를 진행한다. 비자(Visa) 개인 신용·체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50달러 혹은 100달러 이상 구매 인증 후 아이포터·몰테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대 10달러의 배송비를 즉시 할인해 준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